

동네방네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은 코로나19사태로 중단됐던 천문우주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한다. 사진은 천문우주체험을 즐기는 사람들. /금련산수련원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천문우주체험 재개

부산시 공개관측행사 등 진행

부산시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중단됐던 올해 천문우주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을 재개한다고 17일 밝혔다.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의 천문우주체험 프로그램은 수련원 내 천문대 일원(천문대, 천체투영관 등)에서 직접 천체망원경으로 달과 별을 관측하는 프로그램인데 코로나19사태로 수련원이

휴원에 들어가며 운영이 중단된 바 있다. 이번에는 '별이 빛나는 가족사랑 프로그램'과 '공개관측행사' 등 두 가지가 진행된다.

'별이 빛나는 가족사랑 프로그램'은 오는 11월까지 매일 둘째·넷째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가족들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내용은 ▲천문학 특강 ▲천문공작 ▲우리가족 컵 만들기 ▲천체관측 및 가상밤하늘 체험 등 가족이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부산=허의원 기자

곡성군, 마을회관에 무료 와이파이존 구축

전남 곡성군이 모든 마을회관에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존을 구축해 본격 서비스를 들어갔다.

그동안 곡성군은 다양한 목적으로 무료 와이파이존을 확대해왔다.

관광객 편의를 위해 섬진강 기차마을 등 주요 관광지 16곳에 설치한 데 이어 읍면사무소 등 주요 공공장소 20개소에 무료 와이파이존을 구축해 민

원인 편의를 높였다. 하지만 주민들의 보편적 정보접근과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보다 일상적인 곳에 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270개 마을회관 전체에 무료 와이파이존을 구축했다.

대부분 한정된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며 주민들이 마음 편히 인터넷을 비롯해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영양군-농식품부, 농지원부 일제 정비 실시

휴경농지 전수조사 함께 진행

영양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지 현황과 소유,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의 공적 장부기능 확립을 위해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영양군은 올해는 관내 소유자 중 고령농(80세 이상) 660건, 관외 농지소유자 3111건을 우선적으로 정비한다. 이번에 불법 농지 임대차 등 위법사항을

찾아내고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다른 정책 데이터 베이스와 비교 분석하고 현장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세계적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휴경농지 전수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농촌지역 보건교사 구인난 심각 퇴직·순회교사로 방역 '안간힘'



경북도내 보건교사 배치율 70% ↓ 소규모 학교 127곳 지원자 전무 기간제 순회보건교사가 학교 방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경북 농촌 지역 소규모 학교들이 보건교사 구인난을 겪고 있다.

보건교사는 평소 학생 보건교육과 건강관리 업무를 하지만 지금까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는 감염병 예방교육과 유증상자 관리, 방역까지 맡는다.

17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925곳 가운데 286곳에 보건교사가 없어 보건교사 배치율이 70%에 못 미친다.

286곳 중 159곳에는 퇴직한 보건교사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가 보건교사

역할을 한다. 올해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일선 학교가 도교육청 지원으로 채용한 이들이다.

하지만 영양, 청송 등 농촌 지역 학생 수 50명 이하 소규모 학교 127곳에는 그마저도 없다. 근무지 여건이 열악해 지원자가 아예 없어서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부터 경북간호사회, 지역 간호대 등과 협조해 보건교사로 일할 간호사를 찾아 나섰지만 대부분 오지 근무를 꺼렸다.

이에 각 지역교육청 소속 기간제 순회 보건교사 25명이 농촌 학교를 찾아가 코로나19 대응 교육과 관련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교사 1명당 5곳가량을 순회해야 하므로 학교당 1주일에 1차례 정도 방문하는 데 그쳐 보건교육과 행정업무 지원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순회 보건교사들도 피로가 누적돼 근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학교에서 상시 근무하는 보건교사들 역시 어려움이 적지 않다.

34학급 이상인 학교에는 보건교사 1명이 추가 배치돼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으나 그보다 작은 규모 학교에서는 1명이 관련 업무를 감당해야 한다.

학생이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일시적 관찰실로 오면 체온을 측정하고 증상을 가려내야 하는데 많을 땐 하루 20~30명에 이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확진 학생 1명이 발생하면 학교 전체를 폐쇄해야 하므로 보건교사들이 어느 때보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힘들다고 호소한다"며 "교육부에서 보건교사 정원 배정을 늘려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학기부터 34학급 이상, 학생 수 850명 이상인 초·중·고 39곳에 추가인력으로 상시 근무가 가능한 기간제 보건교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metroseoul.co.kr

“코로나 걱정마세요” 부산시, 해수욕장 방역 총력

2020 해수욕장 운영보고회 해수욕장별 맞춤 방역대책 논의

부산시는 오는 7월 부산지역 해수욕장의 본격 개장을 앞두고 코로나19에 대비하는 안전한 해수욕장 환경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하기 위한 '2020 해수욕장 운영보고회'를 가졌다.

17일 열린 보고회에는 시 관련부서, 구·군 및 관계기관 등이 참가, 해수욕장의 피서철 행락객 운집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각 해수욕장 관리청(구·군)의 방역상황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안전·교통·치안 대책, 화장실·세족장·샤워장 등 각종 시설 개선 정비, 숙박·음식 및 파라솔·튜브와 같은 요금 관리 대책, 해수욕장 개장과 운영 등도 논의됐다.

특히, 부산시는 지난 11일 부산에서 개최된 해수부 주최 해수욕장 관계관



부산시가 지역 해수욕장의 본격 개장을 앞두고 코로나19에 대비하는 안전한 해수욕장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진은 예년의 다대포 해수욕장 풍경.

회의 결과 및 관련 지침을 반영하여 해수욕장별 특성에 맞는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각 해수욕장에서는 ▲해수욕장 코로나19 대응반 운영 ▲2m 간격 파라솔 설치 ▲개장식 등 해변에서의 행사 자제 ▲해변에서의 거리두기 집중 계도기간 운영 및 상시 홍보 ▲시설물 방역 강화 ▲연락처 투입함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해운대해수욕장에서는 ▲파라솔 현장 예약제 ▲해수욕장 전자결제시스템 등이 추가로 마련된다.

한편, 부산의 해운대·송정 해수욕장은 6월 1일 ~ 8월 31일, 송도·광안리·다대포·일광·임랑 해수욕장은 7월 1일 ~ 8월 31일 동안 운영한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경북교육청, 인터넷 유해정보 차단 앞장

프로그램 설치서 망 차단 방식 개선

경북도교육청은 17일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면서 유해정보 차단을 프로그램 설치 방식이 아닌 망 차단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기초 의료·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대상과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동시에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는 유해정보차

단을 '프로그램 설치' 방식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프로그램 설치를 강제할 규정이 없어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은 24~29%에 불과했다.

'망 차단' 방식은 개별 프로그램 설치 방식과는 달리 통신사가 일괄적으로 가정의 PC, 스마트폰, 스마트패드까지 유해정보를 차단한다.

이와 함께 경북교육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무료 제공하는 '그린-아이넷' 설치도 권장해 망차단 방식과 혼용하기로 했다. /경북=문봉현 기자

나주시

나주배 100% 음료 개발

전남 나주의 대표 특산물인 배로 만든 다양한 음료 신제품이 선보인다.

나주시는 17일 100% 나주배를 활용한 배 슬러시·배 에이드·배 팔빙수·배 요거트 등 4종의 가공음료 개발에 성공, 시제품 생산을 거쳐 이달 중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음료의 가장 큰 특징은 순수 나주배로 만든 배 워터, 배 청과 함께 쌀, 팥, 서리태, 대추 등 부재료도 모두 나주산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Weather forecast for June 18th (Thursday) with temperature range 28~20°C and a map of Korea showing weather conditions in various cities like Seoul, Busan, and Gyeongju.